

광주지역 영유아의 영양실태

노 희 경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Infant Feeding Practices in Kwangju Area

Hee-Kyung Ro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osun University, Kwangju 501-759, Korea

Abstract

The survey on feeding practice in 202 infants in Kwangju area was undertaken from April to May, 1993. The incidence of breast feeding was 35.6% of the interviewed mothers while 35.1% of infants were formula fed. Baby's sex, birth order, birth weight and mother's educational level did not affect the infant's feeding method of the respondents, but family's monthly income affect it significantly ($p < 0.05$). Initiating time of weaning in infants was 4.83 month. Fruits and fruit juice, infant's most favorite food were the first food introduced to infants. Cereals were offered frequently as infant foods while animal protein source and vegetables were lesser used. 52.8% of mothers purchased commercially prepared infant food, while 33.2% of them did not use it at all. Depending on mother's educational level, mother got information on weaning with the aid of different educational materials. The respondents were most interested in the way how to prepare weaning food. It might be suggested that development of effective nutrition education technique specific to the different groups of mothers should be focused.

Key words : breast feeding, weaning

서 론

영유아기는 신체 성장율이 높은 시기로 영아는 4~6개월이 되면 신생아 체중의 2배, 1년이 되면 3배가 된다¹⁾. 이에 따라 단위체중당 영양요구량이 가장 크며 이 시기의 적절한 영양상태, 형성된 식습관은 그 후 식행동,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쳐 일생동안 건강을 지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2,3)}.

모유는 영양학적, 면역학적, 정서적, 위생적인 면에서 영아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식품으로 특히 생후 4~6개월동안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⁴⁾. 그러나 영아기 후반기에는 모유만으로는 영양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며 철분 등을 위시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이유식의 실시가 필요하다⁵⁾.

1971년에 생후 4개월까지의 모유수유율이 10%에 불과했던 미국에서는 최근 모유수유율이 증가하고 있다⁶⁾.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후반까지 농촌에서 90%이상⁷⁾, 1970년대 후반 도시에서

51.9%⁸⁾ 실시했던 모유수유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유 보충식 시작 실시 연령도 도시를 중심으로 점점 빨라지는 추세이며 시판 이유식 사용 증가도 보고되고 있다⁹⁻¹²⁾.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영아 영양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 어머니의 교육, 직업, 아기성별, 출생시체중 등이 지적되어왔다^{10,13,14)}. 그러나, 이런 연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도시나 농촌에서 주로 했으며 최근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 대도시이지만 농촌지역과 근접해 있어 보수성향을 지니고 있는 호남권의 거점도시인 광주를 중심으로 영유아들의 수유와 이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임신부와 수유부를 위한 모자 보건 영양교육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조사는 광주직할시에 거주하며 소아과를 방문한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20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1993년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했다.

3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사전에 훈련을 받은 조사원들이 어머니와 직접 면담을 해 설문지를 작성했으며, 모든 결과는 SAS program을 이용해 통계 처리를 하였다.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수, 표준편차,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했으며 여러 요인간 유의성은 Chi-square test로 분석했다.

결과 및 고찰

연구 대상자의 일반 사항

조사 대상아는 남아가 51.5% 여아는 48.5%였으며 Table 1에서와 같이 연령은 생후 12개월이하가 49.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umber of subjects (%)
Month (m)	
1~6	35 (17.3)
7~12	65 (32.2)
13~18	51 (25.2)
19~24	30 (14.9)
25m	21 (10.4)
Mother's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27 (14)
High school	114 (56)
College	61 (30)
Family's monthly income (1000won)	
700 >	25 (12)
700~1000	98 (49)
1000~1500	54 (27)
1500 <	23 (11)

Table 2. Baby factors affecting feeding methods

Factor	Breast feeding N (%)	Bottle feeding N (%)	Mixed feeding N (%)	Total N		
Sex	Male	33 (32.0)	40 (38.8)	30 (29.1)	103	X ² =2.092 P=0.351
	Female	39 (40.2)	29 (29.9)	29 (29.9)	97	
	Total	72	69	59	200	
Birth weight	3.0kg >	18 (29.5)	23 (37.7)	20 (32.8)	61	X ² =2.233 P=0.693
	3.1~3.5kg	37 (39.8)	29 (31.2)	27 (29.0)	93	
	3.6kg <	17 (36.2)	18 (38.3)	27 (25.5)	47	
	Total	72	70	59	201	
Birth order	1st	37 (37)	34 (34)	29 (29)	100	X ² =1.034 P=0.905
	2nd	29 (36.3)	29 (36.3)	22 (27.5)	80	
	3rd	6 (27.3)	8 (36.4)	8 (36.4)	22	
	Total	72	71	59	202	

13~24개월이 40.1% 나머지가 25~36개월이었다. 아기의 출생시 체중은 3.1~3.5kg이 46%, 3.0kg 이하가 31%, 3.6kg이상이 23%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6%로 대부분이었고 대졸이상이 30%, 중졸이하가 14%이었다. 가정 월수입은 70~100만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100~150만원이 27%, 70만원 이하가 12%, 150만원 이상은 11%이었다.

영아의 수유 실태

본 조사에서 나타난 광주지역의 영유아들의 수유방법은 출생후 4개월까지의 모유영양이 35.6% 인공영양이 35.1% 혼합영양이 29.2%이었다. 이 결과는 1960년 말 전남 송주군 농촌지역에서 모유영양이 95.6%⁷⁾, 1970년대 말의 중소도시 지역의 51.9%⁸⁾에 비해 또 유영양이 뚜렷이 감소함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농촌지역에서 모유영양이 보다 높으나, 도시나 농촌지역에서 모두 모유영양은 감소추세에 있었다^{9),10)}. 1990년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황¹⁰⁾의 29.1%, 손 등¹¹⁾의 16.1% 보다 이지역에서의 모유영양 비율은 훨씬 높았으나 속초에서 진행되었던 이와 김¹²⁾의 40.0% 보다는 조금 낮았다. 그러나 최근 도시지역에서 행한 조사 결과로는 모유영양이 높았다. 이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조사 대상 지역의 특수성때문으로 보여진다. 급속한 변화를 빨리 주도하는 서울같은 대도시와는 달리 본 조사지역은 지방대도시이나 주변에 농업권이 형성된 농촌지역으로 둘러쌓여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 보수성을 더 띄고 있기 때문에 모유영양의 감소변화가 덜 심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기의 성별, 출생순위, 출생시 체중 등의 요인은 이 조사에서 어머니가 수유방법을 선택하는데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Table 2). 그러나 출생시 체중이 3.1~3.5kg인 영아에게서는 모유영

양을, 출생시 체중이 저조하거나 과잉인 편에서는 인공영양을 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황¹⁰⁾의 결과와도 같았다. 저체중아는 수유하는 중에 쉽게 지치기 쉽지만 Siiver¹⁵⁾는 그런 아이들에게 모유영양을 성공적으로 하는 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황¹⁰⁾에 의하면 과체중아는 인공분만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되나 인공분만을 한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모유영양을 할 수 있다¹⁶⁾. 우리나라에서도 저체중아에 대한 중단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모유방법에 대한 사례연구가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출생순위가 둘째, 셋째보다 첫째인 경우 모유영양을 많이 한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면역체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신생아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초유의 수유실태는 농촌과 도시에서 80% 이상이 초유를 섭취하고 있다는 보고⁷⁾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대상아의 68.3%가 초유를 섭취해 다른 연구결과보다 낮은 초유 수유실태를 보여 주었다(Table 3).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초유 수유실태가 높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대부분 산모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나 병원에서는 모자 동실을 하지 않아 엄마와 아기의 접촉이 어렵고 신생아실에서의 인공영양의 용이성 등이 초유 수유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7,18)}. 산전에 초유의 중요성을 어머니에게 알리는 영양교육의 실시, 성공적으로 모유를 완료한 사

람들의 체험담, 초유와 모유영양 권장에 대해 병원측과 분유회사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는 어머니의 학력, 직업, 가정 소득이 수유방법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모유 영양이 감소한다는 보고^{9,12)}가 있었다. 이것은 교육을 많이 받은 어머니들이 모유영양을 많이 실시한다는 미국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4,6)}.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모유영양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이 조사에서도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수유방법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1$). 또한 가정의 수입은 모유영양과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p < 0.05$).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모유영양율이 높다는^{4,6)} 미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영양이 유익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다른 연구조사와 일치했다¹⁰⁻¹²⁾. 모유의 우수성에 대한 영양교육이 학교 교육 혹은 지역사회를 통해 폭넓게 실시되어야 하며 직장여성들이 모유영양을 기피하는 요인을 분석해서 모유영양에 도움을 줄 실제적,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모유영양을 직장여성도 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넣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층이 모유영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인공영양을 주도해 나가는 것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도록 학교, 공공매체, 보건소, 병원 등에서 산전 영양교육을 시키고 이결

Table 3. Infant's colostrum intake by mother's educational levels

	Primary & middle school N (%)	High school N (%)	College N (%)	Total	
Colostrum	Yes 18 (66.7)	77 (67.5)	43 (70.5)	138	$X^2=0.199$ $P=0.905$
	No 9 (33.3)	37 (32.5)	18 (29.5)	64	

Table 4. Mother factors affecting feeding methods

		Breast feeding N (%)	Bottle feeding N (%)	Mixed feeding N (%)	Total	
Job	Job	5 (17.9)	13 (46.4)	10 (35.7)	28	$X^2=4.778$ $P=0.092$
	Nonjob	68 (39.1)	57 (32.8)	49 (28.2)	174	
	Total	73	70	59	202	
Income (1000 won)	700 >	15 (20.8)	7 (10.1)	3 (5.1)	25	$X^2=15.759$ $P=0.015$
	700~1000	38 (52.8)	34 (49.3)	26 (44.1)	98	
	1000~1500	16 (22.2)	20 (29.0)	18 (30.5)	54	
	1500 <	3 (4.2)	8 (11.6)	12 (20.3)	23	
	Total	72	69	59	200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11 (42.3)	8 (30.8)	7 (26.9)		$X^2=4.464$ $P=0.347$
	High school	44 (38.6)	41 (36.0)	29 (25.4)		
	College <	16 (27.1)	20 (33.9)	23 (39.0)		
	Total	71	69	59		

과에 대해 지속적인 영양관계 연구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체적으로 이 지역의 모유영양실태는 가정 수입과는 관계가 있었으나 다른 대도시에서 보여준 결과와는 달리 교육수준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임신 중 모유영양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조언한 사람은 할머니가 31.6%, 아기아빠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의 조언은 1.6%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할머니의 영향력이 아직도 크나 동시에 핵가족화하면서 아빠의 의견도 반영되는 추세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응답자들은 32.1%가 조언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산전에 어머니 스스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유익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예상외로 의사의 조언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산전치료 중 모유영양을 권유하는데 있어서 병원에서 의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한팀이 되어 국민영양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책임을 느끼고 모유수유관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에서 수유부의 생리, 수유기전, 모유수유의 장점 등을 강의에 넣어 모유영양의 우수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의사들이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모유영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90%이상의 어머니들이 4개월 미만 아기에게는 모유영양이 가장 좋고(96.0%), 모유영양은 모자간 정서관계에 좋다고 답변했으나(94.1%),

조제분유를 쉽게 이용하기때문에 유방을 노출시키는 어려움을 참으면서 모유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도 12.4%에 달했으며 아기에겐은 모유영양이 좋으나 어머니가 회생이라고 생각한 자도 9.9%에 달했다. 손쉽게 조제분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잇점으로 여기는 반면 어머니가 모유를 주는 것을 회생이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젊은 층에 새롭게 등장하는 점에 대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나 토론을 이용한 집단 영양교육 프로그램들의 새로운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인공영양을 하게 된 이유에 48.2%가 모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변했으며 엄마의 건강(23%), 엄마의 직장(12.9%), 아기가 모유를 싫어해서, 둘째아기때문에 젖을 떼고자 하는 이유 등을 들었다(Table 5). 모유가 부족한 것 보다는 모유를 성공적으로 수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모유의 분비가 부족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⁴⁾. 수유의 생리, 모유분비에 관계하는 홀몬기전, 특별히 유선의 생리를 잘 이해시켜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은 누구든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주어 어머니들의 모유의 질, 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다⁴⁾.

이 조사에서는 영아들의 영양상태를 판정하기 위해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 Kaup지수를 산출했다(Table 6). 조사대상아의 50.6%가 Kaup지수 15~18로 정상범주에 속했으며 24.7%가 체중과잉이 되는 군이었고 Kaup 지수가 20이상으로 비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군은 14.6%였다. 모유 영양군의 평균을 비교했을때 인공영양을 한 유아들의 Kaup지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여줘 인공영양아에서 비만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주었고 이런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¹⁹⁾. 인공영양을 시킨 어머니들이 수유병 눈금에 대한 과신으로 인공영양아가 필요이상으로 열량 섭취를 하기 쉬운 것¹⁰⁾도 그 이유 중 하나로 사료된다.

임신 수유중 어머니의 금기식품(Table 7) 여부를 물

Table 5. Reasons for bottle feeding

Reasons	N (%)
Not enough breast milk	67 (48.2)
Mother's job	18 (12.9)
Mother's health	32 (23.0)
Baby's illness	5 (3.6)
For cosmetic	1 (0.7)
Convenience	2 (1.4)
Others	14 (10.1)

Table 6. Effect of feeding methods on kaup index

Kaup index*	Breast feeding (%)	Bottle feeding (%)	Mixed feeding (%)	Total
13 >	1 (3.5)	0 (0)	0 (0)	1 (1.1)
13~15	2 (6.9)	4 (12.1)	2 (7.4)	8 (9.0)
15~18	16 (55.2)	14 (42.4)	15 (55.6)	45 (50.6)
18~20	5 (17.2)	9 (27.3)	8 (29.6)	22 (24.7)
20 <	5 (17.2)	6 (18.2)	2 (7.4)	13 (14.6)
Mean±SD	17.7±3.0	18.2±2.9	17.6±1.8	17.8±2.6

*Kaup index=weight/height² × 100

있을때 응답자의 57.6%가 금기식품이 있었다고 답했으나 학력과 차이는 없었다. 응답자중 가장 금기식품으로 많이 꼽았던 것은 오리고기, 개고기, 낙지, 매운 음식이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으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 같으며 광범위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지도가 요청된다.

대상아의 모유를 끊은 시기는 4.85 ± 4.02 개월로 그 시기는 1주에서부터 24개월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이유실태

1960년대, 197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농촌이나⁷⁾ 도시에서⁸⁾ 6개월후에 이유를 실시했었으나 최근에는 농촌 및 도시 두지역 모두 이유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9,11,12)} 이 조사에서 이유 시작 시기는 4.83 ± 2.11 개월로 모유를 완료한 시기인 4.85 ± 4.02 개월과 거의 일치했다. 최근 손 등¹¹⁾의 조사에서는 평균 이유시작 시기는 서울이 4.1개월로 이 지역보다 조금 빨랐으나 경기지역은 4.5개월로 거의 비슷했으며 속초 지방에서 한 이와 김¹²⁾의 조사에서는 평균 5.6개월로 다소 늦었다. 이것은 대도시와 소도시의 지역간의 차이로 보여지나 지역간의 차이는 이유시작시기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았다. 또한 중졸 이하의 어머니는 5.30 ± 2.82 개월, 고졸은 4.93 ± 1.95 개월, 대졸 이상은 4.46 ± 2.05 개월로 학력이 높을수록 이유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있었다 (Table 8). 이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9,11,12)}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이유의 조기실시 비율도 높아 생후 3~4개월에 61.3%가 이유를 시작했다는 보고도 있었다¹³⁾.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지나치게 빨리 이유를 실시하는 것은 영양적인 이익을 주기 보다는 비만이나 allergy 발생의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⁴⁾.

이유식을 먹이는 이유로는 89.7%의 어머니가 성장

Table 7. Taboo foods by mothers

Education level	Yes	No	Total	
< Middle school	13	11	24	
High school	69	48	117	$X^2=0.256$
College <	32	25	57	$P=0.88$
Total	114	84	198	

Table 8. Initiating time of weaning by mother's education levels

Education level	N	Mean
Middle school	23	5.30 ± 2.82
High school	107	4.93 ± 1.95
College	58	4.46 ± 2.05

에 필요한 영양보충을 위해서라고 영양적인 면을 중시했으나 이가 나서 밥을 먹을 수 있거나 (4.6%), 우유 이외의 것을 먹으려해서 (4.6%)라고 답변한 어머니는 매우 적었다. 이유식을 실시하는 필요는 영양적인 필요와 함께 유아의 정신발달 도움, 유아의 소화기능 구강구조 및 기능의 발달 등 생리적인 특징도¹⁵⁾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들에게 함께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어머니들은 이유식을 주로 유즙 먹은 후 (36.2%)에 주었으나 아무때나 주었다고 답변한 것도 25.4%, 유즙과 동시에는 24.3%, 유즙 먹기 전에는 14.1%이었다고 답해 이유식을 주는 시기는 체계적이지도 일정하지도 않았다.

제일 먼저 먹인 이유 보충식 종류는 과일 및 과즙 (46.4%), 채소 (23.2%)이었으며 시판 이유식도 13.4%나 이용했었다 (Table 9). 그러나 밥, 죽, 미음을 이용한 경우는 11.9%에 달해 1968, 1969년에 이유식이 주로 밥을 이용한 죽, 미음이라고 보고^{7-12,20)}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과일 및 과즙을 요즘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다른 연구^{9,12)}에서도 보고되었다.

대상영아들이 가장 잘 먹는 이유식은 사과, 과즙, 꿀 등의 과일이었고 다음이 계란, 육류 등의 동물성 식품이었으며 시판 이유식을 좋아한다는 아이도 4.3%나 되었다. 많은 아이들이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조리법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시기를 통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와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판 이유식은 유통과정의 발달로 점차 많이 사용하는데 응답자의 52.8%가 매일 사용하며 1주에 3번이 7.8%, 1주에 1번 이하가 6.2%이었으며 전혀 사용안하는 자도 33.2%에 속했다. 다양한 시판 이유식이 도시에서 많이 이용되는 반면 사용안하는 자도 상당수에 속해 어머니들 간에 같은 지역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시판 이유식을 선정하는 선택의

Table 9. First introduced weaning supplementary foods

	N (%)
Fruit and fruit juice	90 (46.4)
Vegetable	45 (23.2)
Egg	6 (3.1)
Rice soup	23 (11.9)
Fish	1 (0.5)
Commercial supplementary food	26 (13.4)
etc	3 (1.5)

기준은 이 연구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

아기에게 주고 있는 이유식 종류 횟수는 대상자 82.4%가 곡류를 주 4회이상, 응답자 82.3%도 과일, 과일 주스를 주 4회이상 사용하고 있었으며 달걀, 두류, 고기, 생선 등의 단백질 식품은 대상자 45%가 2~3회 사용하나, 반면 채소 등은 1주일에 1회 이하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자도 45.9%였다(Table 10). 주로 당질류의 곡류식에 편중되고 있어 채소, 동물성 단백질 식품 특히 철분 등의 결핍이 우려되어 성장하는 영아들에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리라고 생각 안된다. 앞으로 다른 지역, 집단, 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가 행해져 이 결과가 어머니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죽, 밥, 미음을 이유식으로 활용하는 농촌지역 집단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 집단의 기초 영양자료로 철분 영양 불량에 취약한 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식에 대해 어머니들이 가장 알고 싶은 사항은 이유식 만드는 법 (59.2%), 급식방법, 양(10.3%), 진행방법 (9.8%), 시판 이유식에 관한 정보 (9.8%)였으며 가장 관심이 적은 것은 이유시기 (3.3%)였다. 어머니들은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주로 육아서적, 요리책 등을 통해 42.6%가 얻었으며 학력별로 보았을때 고졸, 대졸 이상의 어머니는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서적을 통해 얻는데 비해 중졸 이하의 어머니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습득해 학력에 따라 이유식에 관한 정보를 얻

는 양상이 달랐다(Table 11).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건강, 이유식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나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획일적인 방법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교육배경, 수입이 다른 계층, 연령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각각 대상들에게 맞게 적절한 방법, 매체를 동원해 체계적, 분석적인 영양교육이 집중적으로 보건소, 학교, 병원, 지역사회를 통해 시급히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요 약

광주시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유와 이유실태조사를 1993년 4월 부터 5월까지 실시했다. 영유아의 이유 이전의 수유법은 모유영양이 35.6%, 인공영양이 35.1%, 혼합영양은 29.2%이었으며 초유수유는 68.3%이었다. 아기의 성별, 출생순위, 출생시 체중,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수유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가정수입은 수유방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유아들의 이유 시작시기는 4.83개월이었으며, 46.4% 어머니가 과일 과즙은 처음 먹인 이유식이었고, 아이들도 대부분 좋아했으나 채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곡류를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빈도로 이유식으로 주었으며 52.8%가 시판 이유식을 매일 사용한 반면 33.2%는 전혀 사용을 안했다. 어머니들이 이유식에 관해 정보를 얻는 경로는 학력에 따라 매체가 달랐으며 이유식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이유식 만드는 법이었다.

문 헌

1. Pipes, P. L. : *Nutrition in infancy and childhood*. Times Mirror and Mosby Co., p.4 (1989)
2. Purvis, G. A. : Current status and future trends in infants feeding. *Korean J. Nutr.*, **24**, 270 (1991)
3. Williams, E. R. and Caliendo, M. A. : *Nutrition-principles, issues and applications*. Mcgraw Hill, p.420 (1984)
4. Worthington, R. B. S. : *Lactation and human milk. Nutrition in Pregnancy and lactation*. Times Mirror and Mosby Co., p.244 (1989)
5. Fomon, S. J., Ziegler, E. E., Nelson, S. E. and Edwards, B. B. : Cow milk feeding in infancy : Gastrointestinal blood loss and iron nutritional status. *J. Pediatr.*, **98**, 540 (1981)
6. Fomon, S. J. : Reflections on infant feeding in the 1970s and 1980s. *Am. J. Clin. Nutr.*, **46**, 171 (1987)
7. 이현금, 독고영창, 황우경 : 농촌지방 이유실태조사.

Table 10. The feeding frequency of infant foods per week

Infant food	Less than once (%)	2~3 times (%)	More than 4 times (%)
Egg	40.1	44.7	15.1
Bean & bean curd	40.4	45.9	13.7
Meat & fish	32.9	47.4	19.7
Cereals	7.0	10.7	82.4
Fruit & fruit juice	2.2	15.6	82.3
Vegetables	45.9	27.0	27.0

Table 11. Information sources on weaning food and mother's education levels

Source	Primary & middle N (%)	High school N (%)	College N (%)	Total N (%)
TV and radio	9 (42.9)	21 (18.9)	10 (17.2)	40 (21.1)
Book & cook book	6 (28.6)	47 (42.3)	28 (48.3)	81 (42.6)
Leaflets from hospital	2 (9.5)	18 (16.2)	7 (12.1)	27 (14.2)
Others	4 (19.0)	25 (22.5)	13 (22.4)	42 (22.1)

- 한국영양학회지, 1, 117(1968)
8. 안숙자 : 한국 중도시 유아의 이유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 45(1977)
 9. 송요숙 : 우리나라에서 영아의 수유 및 이유 보충식 급식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영양학회지, 24, 282(1991)
 10. 황계순 : 우리나라 여성의 영아 영양법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1)
 11. 손경희, 윤선, 이영미, 민성희, 전주혜 : 서울 및 경기 지역 유아의 수유 및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 97(1992)
 12. 이정실, 김을상 : 속초시 영유아의 이유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4, 469(1991)
 13. Martinez, G. A. and Kreiger, F. W. : 1984 milk feeding patterns in the United States. *Pediatrics*, 76, 1004(1985)
 14. Martinez, G. A. and Nalezienski, J. P. : The recent trend in breast-feeding. *Pediatrics*, 64, 686(1979)
 15. Silver, S. : A mother's guide to breast feeding and mothering the premature or hospitalized sick infant. *Clin Pediatr.*, 17, 425(1978)
 16. Helsing, E. and King, F. S. : *Breast feeding in practice*. A manual for health work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138(1982)
 17.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Breast feeding. *Pediatrics*, 62, 591(1978)
 18.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Committee on Nutrition : Human milk banking. *Pediatrics*, 65, 854(1980)
 19. Fomon, S. J. : Food consumption and growth of normal infants fed milk-based formulas. *Acta Paediatr. Scand. Supp.*, 1, 223(1971)
 20. 윤종준, 김인달 : 한국 영유아기에 있어서의 이유양상과 영양 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3, 65(1970)

(1993년 12월 14일 접수)